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상관연구

이 영 주 · 임 숙 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Weight Control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Young Ju Rhee · Sook Ja L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0. 5. 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up an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targeting college women by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ight control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The results showed that 1) 85.5% of the college women participated in weight control behavior, and 53.5% of them wanted to lose more than 3kg of their weight, 2) both body cathexis and fit satisfaction of college women were generally low. College women were less satisfied with their body and fit of apparel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weight control degree. The weight control parts and unsatisfied body parts were almost matched : thigh, abdomen, hip, calf, and weight. The unsatisfied fit of apparel parts were also found to be thigh, hip, abdomen, crotch, pant length that matched each parts, 3) fit satisfaction of neckline, shoulder, midriff, hip, crotch, thigh, calf, and skirt length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weight control degree, and 4) weight control group which wanted to lose weight at neck, shoulder, arm, breast, waist, abdomen, hip, thigh, and calf also had low fit satisfaction of neckline, shoulder, armhole, sleeve, breast, waist, abdomen, midriff, hip, thigh, crotch, calf, and skirt length in clothing.

Key words: weight control behavior,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체중조절행동,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I. 서 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급속한 변화는 국민 다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식생활이 개선되었으며, 교통통신과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신체활동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박혜순 외, 1992; 조계성 외, 1995; 허갑삼, 1990). 그 결과 과거에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비

만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조계성 외, 1995; 김수정 외, 1994; 김향숙 외, 1993), 이에 따라 각종 매스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비만치료 기구나 약품 광고 및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비만인의 체중감량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의 경우 마른 체형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어(박우미, 1993)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인들조차 무모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우

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중조절 현상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 여대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이 되다시피 행해지고 있고, 매우 많은 여대생들이 좀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제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근백 외, 1995). 여대생들은 그들의 신체에 대해 비판적이며 신체의 특정부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lifford, 1971; Guggenheim, Poznanski, & Kaufmann, 1977; Searles, Terny & Amos, 1986), 이러한 신체불만족은 많은 여대생들 사이에서 체중조절행동으로 나타난다.

의류산업도 이러한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류산업은 우선적으로 의복 제작시 “표준” 신체에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여성이나 남성들만이 의복을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체의 인지된 규범으로부터 변화를 원하는 개인은 꼭 맞는 의복을 찾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박선영, 1997).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문화적인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만인이나 부분비만인, 혹은 자신이 사회적인 “표준”체형보다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히 살을 빼기 위한 체중조절행동을 하며, 이는 다시 의복에 대한 불만족과 연결될 것이다.

체중조절행동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로는 체중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김연희, 1992; 송명섭, 1992), 체중조절과 식사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임영희, 1989; 김순경, 1991)와 의복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심정은, 1997)가 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신체만족에 따른 의복행동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신체의 불만족과 관련하여 개인이 실제로 신체를 개선시키기 위해 행하는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을 관련시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매우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대생 집단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춤성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의류업계에서 하나

의 거대한 의류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시장세분화와 의복행동 분석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현재 여대생들이 의복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부위를 파악하여 소비자특성에 따라 좀 더 타겟시장에 가까운 의복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중조절행동

현대 사회에 있어 여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규범이 되었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관념을 내면화하여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게 되었고, 가능하면 무엇이든 판매하고자 하는 상업주의 때문에 여성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날씬함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면서 체중감량을 위한 온갖 방법이 개발, 선전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된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은연중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된다(Cash, 1990; Czajka-Narins & Parham, 1990). 그리고 비만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들의 직업상의 기회(Larkin Pines, 1979)와 교육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Canning & Mayer, 1966), 비만은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Tiggemann & Rothblum, 1988). 서구지향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근래에 와서 체중조절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날씬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다이어트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몸무게를 줄이려 한다.

그에 따른 의복불만족은 자아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에 의존하게 되는 사회적 비교이론(L. Festinger, 1954)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과 준거집단(개인의 신념, 태도와 가치를 분명히 하도록 도와주는 개인들)을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나 의복을 선택하며, 자신의 매력이나 적합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한다.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 선택된 정보는 사회적인 피드백의 정보

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가 타인과 비교하여 더 뚱뚱하거나 자신이 착용한 의복이 타인보다 더 뚱뚱해 보인다면, 이는 곧 체중조절행동과 의복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체중조절행동을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시점에서 비만증과 체중조절에 관련 있는 변수들을 조사한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일정 기간동안의 체중 감소 및 유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다룬 동시집단 연구(cohort study)로 크게 나뉘볼 수 있으며, 단순히 체중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비만도, 체지방률 및 체지방의 분포 등 체중 관련 지표들 중에서 연구자가 체중조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의 체중조절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비만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비만도가 포함되며(정근백, 1995; 김연희, 1992; 정옥임, 1991), 여성은 보통 주관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비만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그만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비만도인 인지된 비만수준은 객관적 비만수준인 체질량지수(BMI)나 체지방량(PBF)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비만인식과 타인이 평가하는 비만인식을 뜻한다. 즉 객관적 비만수준에 의하면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비만이라고 생각하면 인지된 비만수준이 비만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인식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체중조절행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송명섭(1992)은 여대생의 비만도를 Broca 지수로 판정한 결과 72.5%가 정상체중 또는 저체중이었는데, 정상체중군의 68%와 저체중군의 28.1%가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임영희(1989)와 김순경(1991)의 연구에서는 각각 82.6%와 81.1%가 체중조절에 관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진(1996)의 여대생을 대상으로한 체중조절실태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비만수준보다 자신을 더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7.5%가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있어 많은 여대생들이 체중조

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대생의 체중조절은 최근 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신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있고, 신체는 여성에게 있어 하나의 개인적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다시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외모나 신체상의 이유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여대생들의 경향으로 나타난다(Hayes, 1987). 그러나 과거의 체중조절행동 관련 연구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여대생의 체중조절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와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체중조절행동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행위와 관심도, 그리고 체중조절신념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체중조절신념은 체중조절이 일반적으로 무엇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가에 관한 기대성향이다(조선진, 1996). 체중조절의 본래 의미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체중을 늘이는 것과 줄이는 것 모두를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 불만족에 따른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

소비자가 의복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복이 자신의 신체와 일치되지 않는 데 있다. 의복이 자신의 신체와 얼마나 잘 맞는가와 같은 의복의 맞춤성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단순한 의복과 신체와의 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이는 다시 체중조절행동과 연관될 수 있다.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의 차이에 따른 신체 불만족에 의해 행해지는 체중조절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Olstrom(1972)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부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의복만족, 신체만족, 체중에 대한 관심,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신체만족, 의복만족 및 체중에 대한 관심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McLean(1978)은 20~89세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나 의모와 의복의 맞춤성이 의복만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가장 젊은 집단인 20~39세의 집단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체형을 목표로 두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감 때문이며,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여대생 집단에서의 체중조절행동이 행해진다고 보여진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의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여학생이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떨어진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이처럼 신체만족도와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 사이에는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복만족 변인 중에서도 의복의 각 부위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복이 몸에 잘 맞는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다시 체중조절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중조절행동과 관련하여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이상형과 의류산업의 이상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은 의복의 치수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류산업에서 사용되는 사이즈체계의 의복은 여성에게 그 사이즈에 맞추어 신체상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의복을 착용할 때 의복과 자신의 신체와의 맞춤 정도를 통해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이 의류치수체계에 반영된 의복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 소비자는 자신을 닮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은 의복 착용시 생기는 맞춤성에 의한 불만족을 의복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을 돌리며, 이는 다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생성하여 불만족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체중조절행동을 실시하게 하기도 한다(Norman, 1988). Wenger(1969)는 여성의 신체태도와 신체부위별 맞춤정도(몸에 꼭 맞거나 헐렁한 정도) 선호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에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그 부위에 꼭 맞는 의복을 선호함을 발견하였고, 이는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집단의 부위별 의복만족도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Frederick(1977)은 보통체중, 과체중,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과체중 여성의 신체와 의복 맞춤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통체중 집단이 가장 자신의 신체와 의복의 맞춤성에 만족하였으며, 다음은 체중조절을 실시하지 않는 과체중 집단의 순으로 만족함이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하는 과체중 집단은 자신의 신체와 의복의 맞춤성에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이 집단의 여성들은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의복의 맞는 정도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체중조절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바꾸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숙(1997)의 여대생의 신체만족과 의복의 맞춤성 만족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여대생은 다른 신체부위보다 몸무게와 관련된 부위에서 불만족을 느꼈으며 의복의 맞춤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복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부위보다는 가슴과 목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몸무게에 대한 여대생의 낮은 신체만족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의복의 맞춤성 만족에 있어 몸무게에 관련된 부위가 여대생들에게 불만으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부위의 신체만족도와 그 부위와 관련된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의복의 바지길이 만족도는 신체중 하체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허리부위의 만족도는 신체의 몸무게 관련부위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루어져왔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의류시장과 제조업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세분화에 도움이 되고 의복, 디자인, 광고 등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만족과 의복의 맞춤성 만족과의 관계는 현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이 의복을 통해 반영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LaBat & DeLong, 1990). 따라서 사람들은 의복을 착용할 때 그들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그 시대의 이상적인 신

체이미지를 비교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의 맞춤성에 더 만족할 것이다. 이는 개인이 의복 맞춤성 만족의 정도를 통해 현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에 반응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각 개인은 의복으로 인한 신체적 편안함뿐 아니라 심리적 편안함까지도 느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체부위에 불만족하여 체중조절행동을 실시하는 개인은 의복의 맞춤성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느낄 것이며, 이는 의복에 반영된 그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복만족의 여러 요인 중 의복의 맞춤성 요인은 신체만족·불만족에 따른 체중조절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여대생들 사이에서 부각되고 있는 체중조절행동이라는 소비자특성을 가진 집단의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해서 또 하나의 소비자 특성과 관련된 의복만족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만족도,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의 관계를 밝힌다.

연구문제 2 :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춤성 만족부위의 관계를 밝힌다.

연구문제 3 : 여대생의 체중조절부위에 따른 의복의 맞춤성 만족부위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및 절차

1) 체중조절행동 측정

체중조절행동의 측정은 Allison B. David(1995)의 "Handbook of Assessment Method for Eating Behaviors and Weight-Related Problems"에 수록된 Rossi(1994)의 "A Processes of Change Model for Weight Control for Participants in a Community Based Weight Loss Program"에서 발췌한 Process of Change Questionnaire(PCQ)의 48 문항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20문항을 선택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로 높게 나타났다.

2) 신체만족도 측정

신체만족도의 측정은 McLean(1978)의 연구에서 사용된 Secord & Jourard(1953)의 Body Cathexis Scale 46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이영윤(1982), 고애란(1983), 김정숙(1985), 조성아(1992), 김희라(1992), 김양진(1992), 이수지(1993), 이연희(1996)의 선행연구에서 예비조사를 거쳐 의복과의 관련연구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3문항과 전체적인 만족의 평가를 위한 김양진(1992)의 1문항으로 총 14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만족도 측정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3)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 측정

의복의 맞춤성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LaBat & DeLong(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복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 가슴, 넥라인의 맞춤정도에 대한 만족도 측정문항을 예비조사를 거쳐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의복의 맞춤성"(14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으로 표본추출은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자료는 1998년 10월 2일부터 9일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38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35부를 제외하고 345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산술평균, t-test, Pearson 적률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체중조절행동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

조사대상 여대생의 체중조절여부를 측정한 후 체

중조절을 하는 집단과 체중조절을 안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체중조절여부에 따라 분류된 집단을 보면, 전체 연구대상자인 345명중 체중조절집단이 85.5%, 비(非)조절집단이 14.5%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82.6%와 81%가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임영희(1989)와 김순경(1991), 여대생 응답자의 87.5%가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조선진(1996)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앞으로의 체중조절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0.2%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체중조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시 원하는 감량정도로는 응답자의 26.7%가 3kg 미만을 감량하기 위한 반면, 53.5%의 여대생이 3kg 이상을 감량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해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많은 양의 체중조절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의 조성으로 인해 여대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많은 양의 체중조절을 원함을 알 수 있으며, 학년별로는 체중조절경험과 계획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1)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의 평균 및 점수범위

전체 연구대상의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각각 2.55, 2.78로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신체부위가 가늘고 긴 형태를 이상형으로 생각함으로써, 이상형과 자신의 체형과의 거리감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불만감이 높다는 박우미(193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의복만족도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의류산업의 이상형 역시 사회의 이상형인 '표준' 체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의류산업의 '표준' 체형과 어느 한부분

이라도 거리가 있는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의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의 관계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0.373^{***}$, $r = -0.239^{***}$ 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체형보다는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마른 체형이라고 생각하여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자신의 체중에도 역시 만족하여 체중감량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체중조절행동을 안하는 집단일수록 마른 체형이 많으므로 마른 체형의 사이즈에 기준을 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좀더 자신의 신체부위에 의복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반면, 자신이 표준체형보다 비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을 빼기 위한 체중조절정도가 높으며, 이는 다시 의복에 대한 불만족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3) 체중조절행동에 따른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의 비교

체중조절행동에 따른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중조절을 하지 않는 비조절집단의 신체만족도가 더 높았고 의복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비조절집단이 현대사회의 '표준 체형'인 마른 체형에 기준을 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좀더 자신의 신체부위에 의복이 잘 맞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표 1> 체중조절행동에 따른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의 비교

(n=345)

변인	비조절집단(n=50)		체중조절집단(n=295)		t 값
	Mean	S. D.	Mean	S. D.	
신체만족도	3.04	0.55	2.47	0.51	7.33***
의복만족도	3.03	0.41	2.73	0.44	4.46***

***p<0.001

4) 체중조절 부위와 신체불만족, 의복불만족 부위의 순위

여대생들이 체중조절을 원하는 부위는 허벅지, 배, 엉덩이, 종아리, 팔, 몸무게의 순으로 나타났고, 신체 불만족 부위는 허벅지, 엉덩이, 배, 종아리, 몸무게, 전체적인 몸매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여대생들은 주로 하체부위에 불만족하며 이 부위의 체중감량을 원하고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 의복부위의 경우는 허벅지, 엉덩이, 배, 가랑이, 바지길이, 허리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여대생들은 의복착용시 주로 하체부위에 불만족하고 이는 체중조절을 원하는 부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의 맞춤성에 대한 만족도가 주로 의복이 하체에 맞는 정도와 상관성이 높다는 LaBat & DeLong(1990)의 결과와 여대생은 다른 신체부위보다 몸무게와 관련된 부위에서 불만족을 느꼈으며 의복만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복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는 황진숙(199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신체만족, 체중조절행동, 의복만족간의 관계

신체만족, 체중조절행동, 의복만족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의 결과와 같이 모든 F값이 $p < 0.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즉, 신체만족은 체중조절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복만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중조절행동은 다시 의복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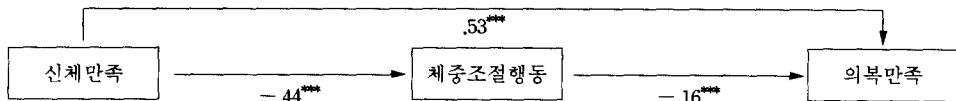
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대생은 신체 만족도가 높을수록 체중조절행동을 적게 하며 의복 만족도가 높은 반면,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할수록 의복만족도가 낮음을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4. 체중조절행동에 따른 부위별 의복만족도

체중조절행동에 따른 각 부위별 의복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중조절행동과 각 부위의 의복만족도는 가슴 부위를 제외한 넥라인, 어깨, 몸통, 엉덩이, 가랑이, 허벅지, 종아리, 스커트길이의 의복만족도에 있어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체중조절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각 부위별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중조절을 하는 집단의 여대생들은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의복의 맞는 정도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체중조절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바꾸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 체중조절부위에 따른 의복만족 부위

체중조절 부위에 따른 의복만족 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각 신체부위의 체중조절 여부에 따라 각 부위별 의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표 3-1>에서 보면, 목과 가슴, 어깨 부위의 체중조절을 원하는 집단의 수는 적었으나, 목과 가슴 부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하는 여대생집단은 비체중조절집단보다 의복의 넥라인과 가슴에 더 불만족하였다. 자신의 신체중



[그림 1] 체중조절행동, 신체만족, 의복만족의 관계

<표 2> 신체만족, 체중조절행동, 의복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n=345)

독립변수	종속변수	Beta	R ²	Adj R ²	F 값
신체만족	체중조절행동	-.44	0.14	0.14	55.04***
신체만족	의복만족	.53	0.43	0.42	254.32***
체중조절행동	의복만족	-.16	0.05	0.05	19.60***

***p < 0.001

〈표 3-1〉 체중조절 부위에 따른 의복만족부위

체중조절부위	의복 부위	집단	N	Mean	S. D.	t 값
목	넥라인	비조절집단	303(87.8)	3.29	0.67	4.12***
		체중조절집단	42(12.2)	2.83	0.66	
가슴	가슴	비조절집단	294(85.3)	2.85	0.77	5.08***
		체중조절집단	51(14.7)	2.25	0.80	
어깨	어깨	비조절집단	279(80.9)	3.01	0.79	6.38***
		체중조절집단	65(19.1)	2.32	0.75	
	소매 진동둘레	비조절집단	279(80.9)	3.16	0.66	3.19**
체중조절집단	65(19.1)	2.86	0.76			
팔	어깨	비조절집단	141(40.9)	3.06	0.79	3.48***
		체중조절집단	204(59.1)	2.75	0.83	
	소매	비조절집단	141(40.9)	3.21	0.68	2.57*
		체중조절집단	204(59.1)	3.00	0.77	
소매 진동둘레	비조절집단	141(40.9)	3.25	0.61	3.36***	
	체중조절집단	204(59.1)	3.00	0.73		

*p<0.05 **p<0.01 ***p<0.001

〈표 3-2〉 체중조절 부위에 따른 의복만족부위

체중조절부위	의복 부위	집단	N	Mean	S. D.	t 값
허리	허리	비조절집단	162(47.3)	2.95	0.83	4.79***
		체중조절집단	182(52.7)	2.54	0.78	
	배	비조절집단	162(47.3)	2.90	0.77	5.80***
		체중조절집단	182(52.7)	2.38	0.87	
몸통	비조절집단	162(47.3)	3.10	0.65	3.98***	
	체중조절집단	182(52.7)	2.80	0.73		
배	허리	비조절집단	87(25.5)	3.05	0.83	4.21***
		체중조절집단	257(74.5)	2.63	0.80	
	배	비조절집단	87(25.5)	3.25	0.69	8.71***
		체중조절집단	257(74.5)	2.41	0.81	
몸통	비조절집단	87(25.5)	3.15	0.70	3.21**	
	체중조절집단	257(74.5)	2.87	0.69		
몸통	허리	비조절집단	256(74.5)	2.84	0.81	4.42***
		체중조절집단	88(25.5)	2.40	0.78	
	배	비조절집단	256(74.5)	2.78	0.81	5.98***
체중조절집단	88(25.5)	2.17	0.85			

p<0.01 *p<0.001

어깨 부위의 체중조절을 원하는 집단은 의복의 어깨와 소매진동둘레에 더 불만족하였으며, 팔 부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여대생은 의복착용시 의복의 어깨와 소매, 소매진동둘레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에서 자신의 신체중 허리 부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여대생이 의복착용시 의복의 허리와 배, 몸통에 더 불만족하였다. 배의 체중조절 여부에 따른 의복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배 부위의 체중조절을 원하는 여대생은 매우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비조절집단과 체중조절집단의 배부위의 의복만족도가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배 부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여대생이 의복착용시 의복의 배와 허리, 몸통에 더 불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몸통의 체중조절에 따른 의복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비조절집단의 허리와 배의 의복만족정도가 체중조절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몸통 부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여대생이 의복착용시 의복의 허리와 배에 더 불만족하였다.

<표 3-3>에서 보면 많은 여대생들이 자신의 신체중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의 체중조절을 원하며, 각 부위별 비조절집단과 체중조절집단간의 의복만족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의 체중조절을 원하는 집단은 의복의 엉덩이와 가랑이에 더 불만족하였고, 허벅지 부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집단은 의복착용시 의복의 허벅지, 가랑이, 스커트길이에 더 불만족하였다. 비조절집단의 종아리와 스커트길이에 만족정도는 체중조절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종아리 부위의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여대생들이 의복착용시 의복의 종아리와 스커트길이에 더 불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마케팅 시사점

본 연구는 의류산업에 있어 중요한 소비층을 형성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중조절행동이 의복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여대생 집단의 시장세분화와 의복행동 분석에 도움을 주며, 소비자특성에 따라 표적시장에 가까운 의복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 여대생의 85.5%가 체중조절 행동을 하며, 그중 53.5%가 3kg 이상의 많은 양의 체중조절을 원하였다.

둘째, 여대생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의복의 맞음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절정도가 높으며 의복의 맞음성에 불만족하였다. 체중조절을 원하는 부위와 신체불만족 부위는 허벅지, 배, 엉덩이, 종아리, 몸무게로 거의 일치하며 의복불만족 부위에 있어서도 허벅지, 엉덩이, 배, 가랑이, 바지길이로 거의 흡사하였고, 비조절집단은 신체중 가슴 부위와 의복의 가슴 부위에 대해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체중조절집단은 신체중 몸무게와 의복의 가랑이 부위에 대해

<표 3-3> 체중조절 부위에 따른 의복만족부위

체중조절부위	의복 부위	집단	N	Mean	S. D.	t 값
엉덩이	엉덩이	비조절집단	121(35.1)	2.98	0.83	11.41***
		체중조절집단	224(64.9)	1.99	0.74	
	가랑이	비조절집단	121(35.1)	2.98	0.79	6.35***
		체중조절집단	224(64.9)	2.44	0.75	
허벅지	허벅지	비조절집단	59(17.1)	3.08	0.75	9.40***
		체중조절집단	285(82.9)	2.02	0.80	
	가랑이	비조절집단	59(17.1)	3.05	0.73	4.55***
		체중조절집단	285(82.9)	2.54	0.79	
	스커트길이	비조절집단	59(17.1)	3.12	0.74	2.32*
		체중조절집단	285(82.9)	2.85	0.82	
종아리	종아리	비조절집단	133(39.1)	3.28	0.06	8.89***
		체중조절집단	210(60.9)	2.52	0.06	
	스커트길이	비조절집단	133(39.1)	3.15	0.78	4.76***
		체중조절집단	210(60.9)	2.73	0.80	

*p<0.05 ***p<0.001

불만족하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체중조절정도에 따른 부위별 의복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체중조절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착용시 의복의 넥라인, 어깨, 몸통, 엉덩이, 가랑이, 허벅지, 종아리, 스커트길이의 맞음성에 불만족하였다.

넷째, 체중조절부위에 따른 의복만족부위를 살펴본 결과 목, 어깨, 팔, 가슴, 허리,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의 체중조절을 원하는 집단의 넥라인, 어깨, 소매진동둘레, 소매, 가슴, 허리, 배, 몸통, 엉덩이, 허벅지, 가랑이, 종아리, 스커트길이의 의복만족도가 낮았다.

앞의 모든 결과는 의복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 소비자가 자신을 닮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Norman, 1988) 여대생이 의복착용시 생기는 맞음성의 불만족을 의복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을 돌리며, 이는 다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생성하여 불만족을 느끼는 신체부위에 대한 체중조절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체중조절부위에 따른 의복만족부위의 유의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4>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중조절 정도와 체중조절 부위는 모두 여대생의 의복만족도, 의복만족 부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대생들은 의

복 착용시 자신의 체중조절부위를 고려하며, 이는 다시 그 부위의 의복만족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 집단은 자신의 실제체형과 사회적으로 인정된 준거집단을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이상적인 체형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체중조절행동과 의복불만족의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여대생이 체중조절행동을 하며, 체중조절 부위도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체중감량을 원하는 대부분의 여대생은 자신이 보다 마른 체형으로 보이기를 원하므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는 의복을 디자인 할 때 좀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과 패턴을 개발하여 여대생들이 체중감량을 원하는 부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대생을 주소비층으로 하는 브랜드는 각각의 체중조절정도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에 적절한 상품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둘째, 여대생들은 의복착용시 자신의 신체와 의복과의 맞음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체중조절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체중조절행동을 안하는 집단일수록 마른 체형이 많으므로 현대사회의 '표준'

<표 4> 체중조절부위에 따른 의복만족부위의 유의성 비교

체중조절 부위 의복부위	목	어깨	팔	가슴	허리	배	몸통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넥라인	***									
어깨		***	***							
소매			*							
소매 진동둘레			**	***						
가슴				***						
허리					***	***	***			
배					***	***	***			
몸통					***	**				
엉덩이								***		
가랑이								***	***	
허벅지									***	
종아리										***
스커트길이									*	***

*p<0.05 **p<0.01 ***p<0.001

체형인 마른 체형에 기준을 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좀더 자신의 신체부위에 의복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반면, 자신이 사회적인 '표준'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히 살을 빼기 위한 체중조절정도가 높으며, 이는 다시 의복에 대한 불만족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의류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이즈를 좀더 세분화하기 위한 신체측이 필요하며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사이즈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특히 허벅지, 엉덩이, 배, 가랑이, 바지길이, 허리의 맞음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 부위의 올바른 패턴제작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며, 마른 체형에 기준을 둔 의류산업의 사이즈 체계가 좀더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대생을 주대상으로 하는 제품개발자는 여대생이 사이즈 외에도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에 따라 하나의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짐을 상기고 이를 기초로 하여 좀더 다양화되고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개발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의복의 패턴체제도 세분화되어 여대생의 각 부위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업계 모두의 산학협동에 의한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표집하여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체중조절행동 집단 내에서도 그 정도를 달리하여 각 집단의 의복행동 차이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복의 맞음성에 대한 불만족이 구체적으로 각 부위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갖는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신체만족도,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측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은성(1984), 여대생 기성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영양조사 보고서(1992), 보건사회부.
- 김양진·강혜원(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 김정순(1993),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변천과 현황, 대한의학협회지 36(3), 271-284.
- 김진구(1991), 복식사회심리학, 경춘사.
- 박상희(1994), 중년기 여성 기성복의 신체적합성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혜순(1996), 여대생 '몸매 콤플렉스' 심하다, 조선일보, 23507호-1996. 10. 9, 39.
- 심정은(1996),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선(1993), 여대생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와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1996), 성인 비만 여성의 체형특징 및 기성복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1993), 기성복제작을 위한 표준치수체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자(1992),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재은(1992), 20代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진(1996),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행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숙(1997),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 연구, 복식, 34.
- 황진숙(1997), 남녀 노년층의 자아존중과 기성복만족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1(8).
- 홍미령(1995), 비만인의 자기조절행위와 체중조절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lison B. David(1995), Handbook of Assessment Methods for Eating Behaviors and Weight-

- related Problems, SAGE Publications, Inc.
- Cash Thomas F., Thomas Pruzinsky(1990), *Body Images*, Guilford Publications, Inc.
- Creekmore A. M.(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783, Michigan State Univ.
-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 Ford I. M. & Drake M. F.(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LaBat, K. L. & Marilyn R. DeLong(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 LaBat, K. L.(1988),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 Lennon J. Sharron(1991), *Categorization as Function of Body Typ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2).
- Lerner R. M, Karabenick S. A. & Stuart J. L(1973), *Relations Among Physical Attractiveness, Body Attitudes, and Self-concept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85, 119-129.
- Littrell Mary A., Mary L. Damhorst John M. Littrell(1990), *Clothing Interests, Body Satisfaction, and Eating Behavior of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115(97).
- McLean F. P.(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Univ.
- Megel E. Mary et al.(1994), *Health Promotion, Self-Esteem, and Weight Among male College Freshmen*, *Health Values*, 18(4).
- Millman, M.(1980), *Such a Pretty Face, Being Fat in America*, New York, W.W.Norton & company.
- Thompson, J. K.(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Elmsford, NY.
- Troxell(1973),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